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 로드맵 만든다

공론화위, 주암면 자원순환센터·왕지매립장 현장 방문
배출·처리방식 대책 협의…연내 최종 권고안 마련키로

지역 최대 현안인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출범한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가 잇따라 회의를 열고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박상숙 순천대 교수·이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일 가동이 중단된 주암면 자원순환센터와 왕지매립장 현장 방문과 함께 2차 총회를 열고 쓰레기 문제 대책을 담은 권고안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월 초 운영업체 순천 에코그린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자원순환센터 가동을 멈춘 이후, 지역의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출범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총회를 통해 자원순환센터 중단이라는 현 사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대안 마련의 시급성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공론의 과정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해 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 동안 3개 분과(기획운영 분과, 시민실천 분과, 정책대안 분과)별 회의를 통해 자원순환센터 문제점과 현 상황, 현 매립시설의 활용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신규 처리시설 설립의 방향, 그리고 시민이 느끼는 쓰레기 수거와 처리의 문제점 등을 논의해왔다.

지금까지 공론화위원회는 15년간 운영하기로 했던 주암 자원순환센터가 4년만에 문을 닫기까지 운영사의 책임과 순천시의 정책적 실패 요인, 시민들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접근 방식과 수거 운반업체, 처리업체, 시 행정간의 처리 방식의 이견 등이 주된 쟁점이었다.

기획운영분과에서는 공론화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설정하는 등 전반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민실천분과는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과 운반체계, 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와 대안을 협의키로 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정책대안 분과회의에서는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에 담아낼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와 함께 순천시의 장기적인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지난 2일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이 왕지매립장을 찾아 쓰레기 수거와 처리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순천시 제공〉

박상숙 위원장은 "매번 회의 때마다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겠지만, 하나 하나 이야기해나가는 속에서 논의가 진화해간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이야기 속에서도 좋은 의견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다"며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모아서 권고안에 담아야 할 정책적 대안으로 한 걸음씩 좁혀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1~2 주 내 회의를 통해 쓰레기 배출·수집·운반·처리까지의 과정을 마련한 중간결과를 발표 하고, 올해 말까지 최종 권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순천시 신청사 규모 2배 이상 넓어질 듯

현 청사 인근 상가·주택 매입
2만6000㎡ 부지 2024년 준공

현 부지에 건립을 추진 중인 전남 순천시의 신청사 규모가 현 청사보다 2배 이상 넓어질 전망이다.

13일 순천시에 따르면 새로 지을 청사의 면적은 2만6000㎡로 현 청사 면적 1만2000㎡ 보다 두배 이상 넓다.

순천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현 청사 부지 인근 상가와 주택까지 부지를 확장하기로 하고 인근 주민과 상인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내년 1월까지 신청사를 건립할 터를 결정하고 시민과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청사 층수 등 건립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과 철거 작업을 시작해 2024년 상반기에 신청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1500여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사는 3층 규모로 1979년 건립됐으나 공간이 부족해 9번이나 증축 공사를 거쳤다.

최근에는 인근 10층 빌딩을 빌려 별관으로 쓰고 있으며 해마다 임대료로 1억3000만원을 내고 있다.

2003년부터 신청사 건립 여론이 일었으나 진척이 없다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왔다.

순천시 관계자는 "설명회를 열어보면 주민 대부분이 현재 청사 부지에 건립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도 요구해 건립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AI 발생해도 순천만 개방 방침 '논란'

시, 인근 상권 보호 위해 폐쇄 대신 방역 강화키로

순천시가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도 탐방로 등을 폐쇄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다.

13일 순천시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더라도 순천만 생태관과 탐방로는 정상적으로 개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순천만 철새AI 분변의 유전자 분석결과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판정을 받자 곧바로 폐쇄한 것과는 비교가 된다.

순천만은 이듬해 1월 중순까지 두 달 가량 폐쇄됐으며 주변 상인들은 매출이 떨어지는 등 피해를 봤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상인들의 하소연이 이어지자 순천시는 탐방로 등을 개방하는 대신 방역을 강화하는 것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이다.

탐방로에는 3단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해 주요시설 진출입로에 발판 매트와 자외선소독기를 설치한다.

관람객들의 관람 동선에는 분무 소독을 하고 철새 분변에 대한 예찰검사도 주 1회 이상 하기로 했다.

철새가 주로 활동하는 희망농업단지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철새지킴이를 배치해 출입을 통제한다.

하지만 순천만 개방 방침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특히 순천시는 전남도와 협의 없이 순천만 개방 방침을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인다.

순천만은 2014년과 201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일정기간 폐쇄해 출입통제 조치가 이뤄졌다.

무엇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행동지침에는 '필요시 전국의 모든 방역관리 강화 대상을 폐쇄 조치한다'고 돼 있어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순천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순천만을 개방하되 방역을 강화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라며 "방역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순천만을 폐쇄하면서 인근 상권이 무너지는 등 부작용이 커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순천만은 2014년과 2016년에 이어 지난해에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잠정 폐쇄됐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순천시 세계 최초 순천만 에너지자립마을 완료 열림식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패시브하우스 19동 신축

순천시는 세계 최초로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인 패시브하우스기술을 접목한 순천만에너지자립마을을 완료하고 최근 열림식을 개최했다. 〈사진〉

열림식에는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나눔 에너지봉사단 축하공연과 사업경과 보고 및 사업추진 과정을 담은 영상물 상영, 감사패 전달, 완공 포퍼먼스 등 공식행사 후 아고라공연과 이웃마을 주민들이 함께 한 어울림행사로 이어졌다.

시는 2016년 신재생에너지원과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인 패시브하우스(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해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물)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자립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사업에 선정되어 지난달까지 19동의 패시브하우스 신축, 태양광 59kw, 지열227kw, 소수력 50kw의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를 완료했다.

순천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지구 온난화 요인 해소를 위해 2020년 까지 신재생에너지 자립율 10%, 에너지자립마을 20개 조성 목표를 설정했다.

시는 또 2017년 말 8.9%의 에너지 자립율을 달성하고 현재까지 6개 마을 224가구 911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원해 연간 2억180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하는 등 '에너지생산복지도시순천 3030계획'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곳 순천만에너지자립마을은 패시브하우스를 기반으로 신규마을을 조성한 세계최초 사례로 열림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순천에서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면서 "순천만에너지자립마을은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하는 패시브하우스와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액티브하우스 기술이 접목돼 육지형 에너지 자립섬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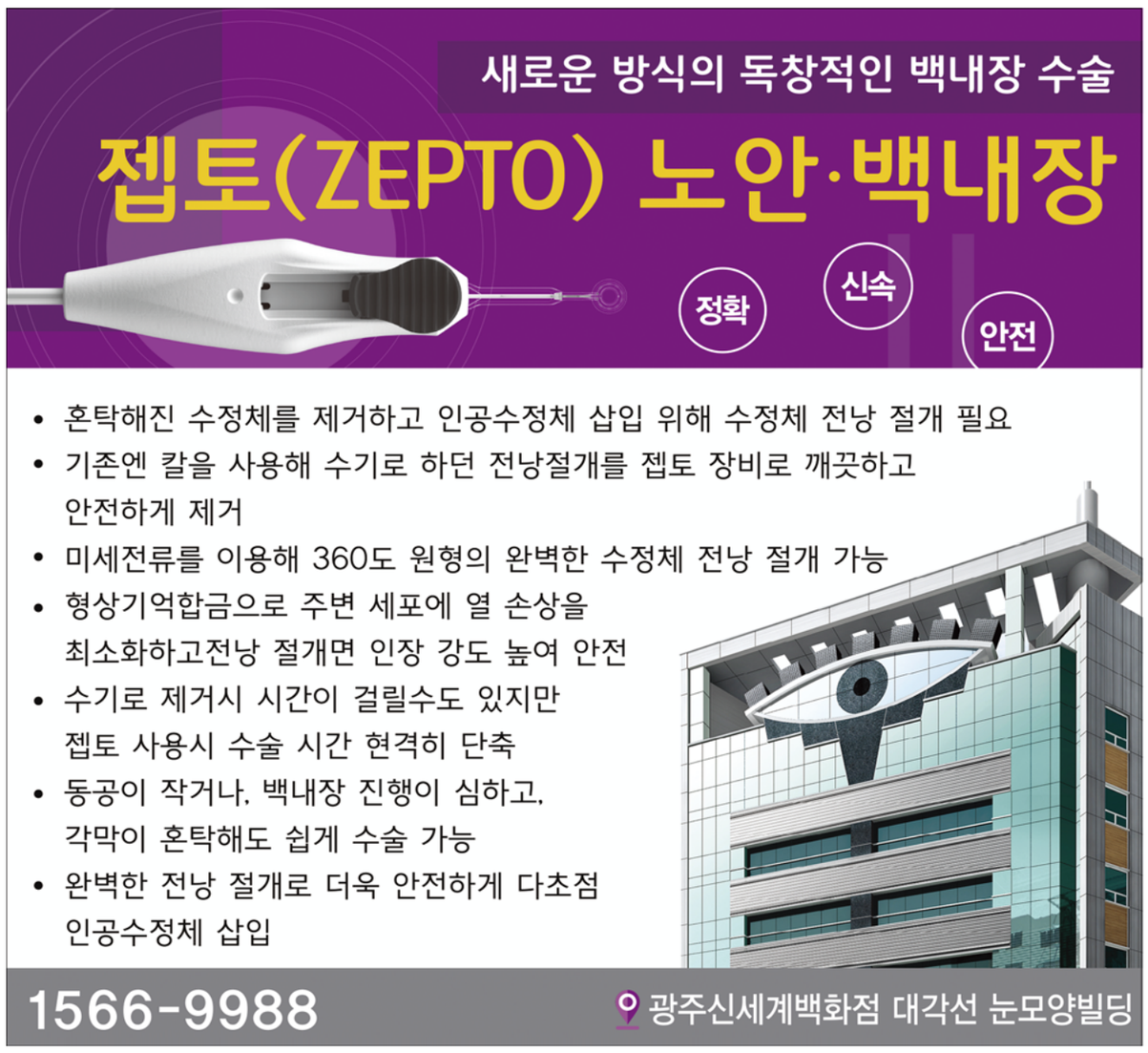
김장 쓰레기 전용봉투 판매
연말까지 특별수거기간 운영

순천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45일간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키로 하고 전용 봉투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김장철에 채소찌꺼기 등의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한 반면 기존 가정에서 사용하는 배출 용기의 경우에 용량이 너무 적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된 노란색 전용봉투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일반 종량제 봉투와 같은 가격으로 구입하면 된다.

김장철 발생하는 채소류 잔재물 등은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는 만큼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나, 노란색 김장쓰레기 전용 수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김장쓰레기를 일반 종량제봉투나 그물망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혼합배출,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김장쓰레기 배출 시 노끈, 비닐, 그물망 등은 반드시 일반쓰레기로 분리배출하고 김장쓰레기만 전용용기 또는 노란색 전용 봉투를 사용함으로써 김장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박선천 기자 psc@kwangju.co.kr